

문화

예술의 거리서 문화난장

19~20일 '공동예술제' 시민·작가 누구나 참여 다양한 전시·경매 통한 기부 프로그램 등 눈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는 동구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1940년대 전후, 중앙초고 강당에서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천경자 화백도 이곳에서 작품을 소개했다.

또 1950~60년대 골동품 가게와 표구점, 예술가들의 출입이 잦은 다방이 생겨나면서 예술의 거리의 윤곽이 잡혀갔다. 이 다방에서는 고 양수아, 황영성 화백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에도 예술의 거리에는 갤러리 8곳, 표구점 15곳, 골동품 가게 15곳, 미술학원 5곳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의 거리에서 문화 난장이 펼쳐진다. 2011 아트로드프로젝트와 예술의 거리 변화회는 오는

19~20일 '2011 공동예술제'를 연다.

'삶이 곧 예술, 예술의 길에서는 누구나 예술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전시와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다문화 여성과 노인, 상인들이 작가와 함께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시민들의 소장품 경매 등 볼 만한 프로그램이 많다.

먼저 메타미술학원 갤러리 1층에서는 지역 노인 30명이 서양화가 강남규·박수만씨의 지도를 받아 자신들의 어머니 얼굴을 그려 선보이는 '백발에 그려보는 친정엄마'전이 열린다.

또 가이비 공방 1층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눈으로 광주를 담다'는 이주 여성들의 눈에 비친 광주의 풍경을 선사한다. 다문화 여성 12명이 참여해 카메라 앵글에 광주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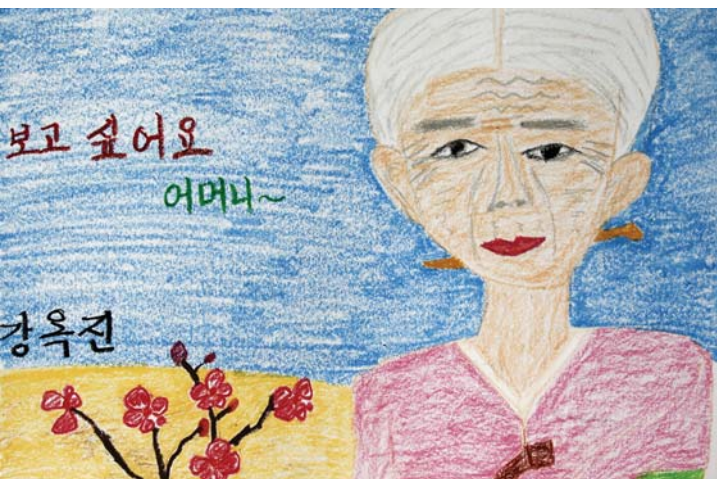
'길 따라 예술 따라'는 예술의 거리와 광주·전남의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19일 오전 8시 30분 광주역을 출발해 담양 소재원과 식영정, 가사문학관, 예술의 거리 등을 돌아보는 코스다. 참가비는 없고, 선착순 45명을 모집한다.

문화를 통한 기부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나인갤러리에서 열리는 '2011 책+나눔'은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헌 책을 팔아 그 수익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증하는 행사다. 이 곳에서는 아트 업서와 강행복 작가의 소장품, 예술가들의 그림책 전시도 함께 열린다.

또 지역 명사 30명이 기증한 작품을 경매하는 '나는 예술로 기부한다'는 수익금 전액은 인화학교 학생들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기증된다.

이 밖에도 골동품시장, 재미장터, 나나노라디오방송국, 아의 경매, 골동품과 고미술품 무료 감정 등의 프로그램이 결집된다.

예술의 거리 변화회 안철환(51) 회장은 "예향 광주의 상징이자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24-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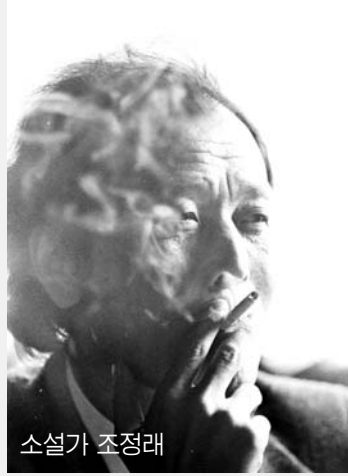
'백발에 그려보는 친정엄마'전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예술의 거리에서 열린 미술품 경매 모습.

'최옥수의 호남 예술가 사진전' 17~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소설가 조정래



화가 오승운



극악인 공옥진



극작가 차범석

삶이 곧 예술... 그가 전내는 앵글 속 이야기

30년간 촬영... 문근영 등 지역예술인 120여명 사진 모아

민문화관 1층 전시장 미디어 큐브 338에서 열리는 '최옥수의 호남 예술가 사진전'을 통해서다. 최씨는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을 모두 광주 문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고, 이를 기념해 재단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

지역의 대표 문화잡지였던 '금호문화' 시절부터 꾸준히 예술가들을 만나 그의 앵글에 포착된 인물은 예술 장르와 연령대를 모두 아우른다. '산불'의 극작가로 한국 문학계에 큰 획을 그은 차범석,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었던 오승운과

양인옥 등 작고 예술인들의 생전 모습은 반갑다.

여기에 오승우·조방원·이매방·공옥진·김형수·강봉규·송기숙·송순섭·임권택·양태욱·정소파·정승규 씨 등 원로예술인들과 김창일·박운모·곽재구·고재중·박태후 씨 등 중견 예술인들의 사진도 전시된다.

그밖에 요즘 한창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이남·손봉채·최영화·윤진철 씨 등 40대 젊은 예술인들의 쾌거 어린 모습도 만날 수 있으며 고향을 떠나 중앙에서 자기 분야를 확실히 개척하고 있는 박명

성·유희성 씨 등도 앵글에 담았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미디어 큐브 338은 빛고을문화관 내 카페 자리를 리모델링한 미디어아트 전문갤러리로 338은 광주문화재단 주소에서 따온 이름이다.

최옥수씨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의 눈과 버릇들을 눈여겨 보게 되고, 수시로 만나면서 마음으로부터 무언가를 뽑아내려 애쓴다"며 "개인이 작품을 소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품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62-670-79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 소리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

팝핀현준·소리꾼 박애리, 내일 '목요상설무대'서 공연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비보이와 국악인의 만남이 의외였기 때문이다. 연상연하 커플, 한국 최고의 비보이 팝핀현준과 신세대 소리꾼 박애리(국립창극단원) 부부 이야기다.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는 '그와 그녀의 이야기'가 오는 17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옛 전남도체육회)에서 열린다. 공간을 운영하는 광주문화재단이 새롭게 시작하는 '목요상설무대' 첫번째 공연이다.

'전통'에 프로포즈하는 '현대' 공연 문화를 형성화한 '그와 그녀 이야기'는 전통 판소리와 팝핀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 기획한 웨딩콘서트에서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목표 출신 소리꾼 박씨는 '국악계의 이치리'로 불린다. 9살 때 판소리에 입문, 전주대사습과 동아콩쿠르 등에서 수상한 그녀는 남도민요 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그녀는 창극 '청', '춘향', '로미오와 줄리엣' 등 창극단 작품의 주역을 잇따라 깨쳤고 TV 드라마 '대장금' 주제곡 '오나라'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댄서로 꼽히는 팝핀현준은 다양한 뮤지컬과 CF 등에서 활동했고 현재 팝핀현준아트컴퍼니, 한국예술종합전문화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석 무료. 문의 062-670-79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소리' '화요예술무대' 문예회관 내년 작품 모집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정창재)은 2012년 '남도소리상설무대'와 '화요예술무대' 기획 공연 작품을 모집한다.

남도소리 상설무대는창극·판소리·전통무용·풍물 등 전통국악 등을 대상으로, 화요예술무대는 음악·무용·연극·콘서트 등 현대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당선작은 서류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올 12월 말에 발표하며 선정된 작품에는 공연장 무료대관, 장비·기계·시설 운용인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접수마감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획공연 신청서식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gjart.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062-613-83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명리조트가 상위 1% VVIP 고객을 위해 운영하는 노블리안 소노펠리체는 오로지 최상위 계층을 위해 특별히 설계, 건축된 '프리미엄급 명품리조트'로 리조트라는 단어가 오히려 초라해 보일만큼 기존의 리조트, 콘도를 압도하는 고급스러운 시설을 자랑한다.

시대적 욕구에 부응해 대명리조트는 고품격 소노펠리체 504실을 흥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맞은편 12만 9,144㎡면적의 독립된

대한민국 퍼스트 클래스를 위한 세컨드 하우스- 노블리안

VVIP용 노블리안 회원권 잔여구좌 선착순 분양중!

대명리조트-소노펠리체 전평형 분양마감으로 희소가치 상승!

대명리조트는 이용 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전혀 없도록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하게 1:1 담당제로 관리한다. 모든 회원들이 최고의 품격을 가지고 가족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VVIP 노블리안 회원모집에 대한 분양안내 책자를 요청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본사 : 02) 2052-0001

단지에 지었다.

분양상품으로는 VVIP용 노블리안회원권이 있으며, 연간 60일 사용하며 일시불 가입시 할인혜택과 동시에 분양 즉시 회원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 및 각 지역 아쿠아 등의 부대 시설에 무료 및 할인혜택이 부여되며, 가입과 동시에 전국의 대명

리조트 8곳(솔비치, 변산, 경주, 제주, 설악, 흥천 소노펠리체, 양평, 단양) 지역리조트와 여수(2012 오픈예정) 거제(2013 오픈예정) 등의 노블리안 전용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프리미엄급 정규골프장인 비발디CC도 주중회원(2명 지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www.geum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게임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